

풍성한 영화 한상차림... 입맛대로 골라 보세요!

9월 광주극장 상영작 소개

2. 오는 11일에는 영화 '그녀에게'가 개봉한다. 프로페셔널한 삶을 지향하던 신문사 정치부 기자 상연이 계획에 없던 장애아 엄마가 되면서 겪게 되는 10년 동안의 여정을 그린 감동 실화다. 실제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였고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인 류승연 작가의 스테디셀러 에세이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딸'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막연한 희망이 아닌 치열한 삶의 드라마를 그렸다는 호평을 받는 작품이다. 2023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여자우수연기상을 수상한 김재화 배우가 발달장애아의 엄마인

3. 쫓임에는 구조조정으로 동료들을 잘라내야 하는 준희와 인사팀의 리얼 현실 드라마 '해야 할 일'이 개봉한다. 해고를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해고를 통지하는 직장인의 시선에서 전개되는 신선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고의 과정'을 현실성 있게 담았다. 해고의 실행을 맡은 주인공의 내면에 이는 혼란과 정리해고의 칼바람 속에 놓인 다양한 인물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밖에도 경북 문경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여성들의 유쾌한 연대와 정서를 포착한 신동일 감독의 '문경', 장강명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도 명절 연휴 기간 만날 수 있다.

4.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19일에는 제7회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김민희 배우가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홍상수 감독의 신작 '수유천'과 20일 일본의 젊은 거장으로 주목받는 미야게 쇼 감독의 신작 '새벽의 모든'이 관객들과 만난다. 아울러 철도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한 대전에서 펼쳐지는 영화 축제 '대전철도영화제'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프리 페스티벌이 광주극장에서 펼쳐진다.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에는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수 있는 크리스 마커의 '태양 없이'가, 21일 오후 5시30분에는 스텔라 세이준 감독의 일본 야쿠자 영화 '동경 방랑자', 22일 오후 5시30분에는 프레스턴 스티스 감독의 로맨스코미디 영화 '팍팍치스토리'가 상영된다.

상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현대 가족 의미 그려낸
웰메이드 기대작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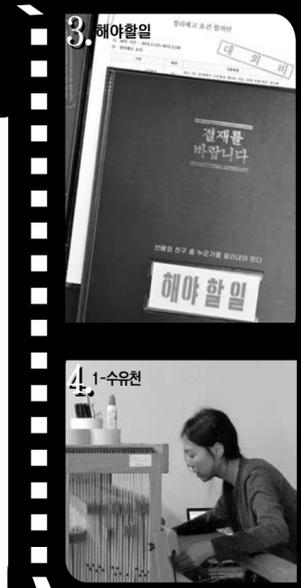
빛고을서 미리 만나보는
대전철도영화제까지

한가위 추석에 만나는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웰메이드 영화들이 광주극장에 내걸린다.

1. 먼저 지난 4일부터 상영 중인 영화 '딸에 대하여'는 딸 그리고 딸의 동성 연인과 함께 살게 된 엄마가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이해 대신, 최선의 이해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세 여성 저마다의 성정을 섬세하게 담았다. 가족의 의미를 넘어 사회의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다.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며 딸과 딸의 동성 연인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칠 수도 없는 엄마 역으로 열연한 배우 오민에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에는 이미랑 감독과 주연배우 오민에게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열린다.

주인공 '상연'을 맡아 밀도 높은 감정 연기로 열연을 펼쳤다.

같은 날 개봉하는 '장손'은 별 탈 없던 보통의 한 대가족에게 드리운 고요하고도 스펙터클한 붕괴를 그린 영화다. 우리 시대의 가족의 의미와 문제를 질문하고 성찰한다. 신예 오정민 감독의 5년간 노력의 결실이 집대성된 데뷔작으로 전설의 대배우부터 중견 베테랑, 연기파 라이징 배우들까지 대가족 케미스트리를 완벽 구현한 배우진의 연기 앙상블이 돋보인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KBS 독립영화상, 오로라미디어상, CGK 촬영상을 수상하고 서울독립영화제와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서 초청됐다.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에 정은혜 명창

농악 대상 '빛고을 영무장 농악단 년실'...임방울 명창 예술혼 기려

정은혜 명창이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명창 부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농악 부문 대상은 '빛고을 영무장 농악단 년실'이 차지해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국악 신예와 최고의 소리꾼을 찾는 '제32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를 지난 6-9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5-18기념문화센터, 광주예술의전당 등에서 개최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는 국내 최고의 국악 명인을 발굴하는 판소리 명창부·기악·무용부문 본선 경연이 진행됐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인 정은혜(40·서

여-여) 명창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4천만원, 임방울상 트로피가 수여됐다. 명창부 최우수상은 김윤아 명창이 차지했으며, 농악 대상팀은 빛고을 영무장 농악단 년실에 돌아갔다.

정은혜 명창은 "가족들이 2등만 하고 오라고 했는데 대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다"며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최승희·송순섭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대중의 아픔을 달래주는 예술가가 되도록 한걸음 한걸음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연 결과, 수상자 72명에게 대통령상 4천만원 등 총 상금 1억7천700만원이 수여됐다.

/박성강 기자



'바람, 불어오다'...전통타악 매력 속으로

타악집단 자우 공연...14일 전통문화관

전통타악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공연이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4일 오후 3시 토요상설공연에 타악집단 자우(사진)의 '바람, 불어오다' 무대를 올린다.

타악집단 자우(慈雨)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라는 의미로, 음악을 통해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어주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통타악 음악양식을 극대화하고 여러 음악적 요소들을 흡수해 타악 중심의 창작음악을 만들고, 보다 많은 대중들과 공감과 소

통을 추구하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기존 선율 악기에 반주 역할을 하던 타악을 중심으로 배치했으며, 모든 곡을 타악이 중심이 되는 창작음악으로 구성했다.

2021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작으로 선보였던 ▲바람길 ▲수평선 ▲몽금포타령 ▲불침주야 ▲조월(신작곡) ▲바람, 불어오다 등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는 ▲타악 신예인-홍은주·곽민경·윤지아·최세영 ▲피리, 태평소 김리수(국가무형문화유산 제 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수자) ▲사회, 소리 조예결 씨가 출연한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풍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	---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